의전편람·사회교리 교재 편찬한다

불교사회연구소, 종책연구 사업에 '주력'
수행체계 조사…대국민 의식조사도 실시

불교사회연구소가 올해 종단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방안 연구, 종단개혁 20주년 세미나, 재가불자 수행체계 조사, 의전편람 연구 등 종책연구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속 사업으로 추진해 온 호국불교 연구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사진)은 지난 2월24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사찰재정과 수행체계, 불교 사회교리 등 다양한 연구의 성과들이 종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종책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종단 추진위원회, 실행위원회와 함께 4회 걸쳐 세미나를 열고 개혁의 의미와 향후 종단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영결식이나 다비의식, 승좌법회 등 다양한 불교 행사시 의전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전편람 연구도 주요 사업으로 펼치기로 했다.

2011년 연구소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의식조사' 역시 주요 사업으로 실시해 오는 9월경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사회의 주요현안을 비롯해 종교 현안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 등 주요 조사 지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2011년 조사 이후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이웃종교에 대한 현황 조사도 펼치기로 했다. 우선 가톨릭을 대상으로 교세, 성직자 및 신도교육, 재정, 포교활동 등 현황 조사를 펼쳐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종단 연구와 더불어 사회적 의제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현안에 대해 불교의 눈으로 분석한 '불교 사회교리 교재'도 편찬하며, 교재는 조계종의 시각을 반영하고 승가와 더불어 재가불자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하반기 불교와 인문학, 사회과학을 연계한 아카데미도 개설할 예정이다.

소장 법안스님은 "이제 불교사회연구소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종책연구와 사회적 의제 연구를 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태규 기자

2월27일 증서 수여식 후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정진을 다짐하며 서로 기운을 북돋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과 종단 장학승.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사찰승가대학원 9명 등 20명
2014 종단 장학승 증서 수여

올해 조계종 장학승 20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단 장학승으로 선정된 스님들에게 각각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올해는 중앙승가대학 대학원 및 사찰승가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장학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사찰 승가대학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사찰승가대학원 전문·연구과정에 재학 중인 스님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국내 석·박사 과정 6명, 해외 석·박사 과정 5명 등이다.

국내장학승으로는 고려대 대학원 석사에 이어 박사과정에도 장학승으로 선정된 일안스님을 비롯해 혜인, 현우, 무각, 재마, 지민스님 등이며, 해외에서는 혜융, 법장, 원걸, 덕일스님과 비구니 스님으로 국제불교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킹스턴대 석사 입학예정인 법전스님이 선정됐다. 또 사찰승가대학원에서는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 만경스님, 선안스님, 선운 초기불전승가대학원 법이, 보적스님,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법연, 성담, 초은, 우담, 성진스님 등이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해당과정 수료 시까지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이 지급된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독일통일 과정 종교계 역할은?

민추본 12일 월례강좌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종교계의 교류사업 등 민간차원의 교류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강좌가 마련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오는 12일 오후6시30분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월례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동기 전 서울대 HK연구교수가 강사로 나서 독일통일 사례와 과정을 돌아보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종교 교류의 의미와 불교계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좌에 관심 있는 불자나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한편 민추본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조불련과 실무협의를 갖고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합동점등법회, 만해스님 70주기 남북공동학술토론회, 서산대사 국가제향 복원, 북녘 어린이 영양개선 지원 등 올해 현안과 남북불교교류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 협의한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지현·종삼·탄공스님 중앙종회의원 당선

2월27일 제15대 보궐선거

지현스님 직능 강원대표

종삼스님 직능 율원대표

탄공스님 제6교구 마곡사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 화엄사 주지 종삼스님,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 부여 고란사 주지 탄공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지난 2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직능직 강원대표에 지현스님, 율원대표에 종삼스님을 선출했다.

종삼스님은 도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화엄사에서 도천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9년 범어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국장과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12대·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지현스님은 법종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보각사에서 법종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5년 범어사에서 소천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총무국장, 총무부장, 문화사업단장, 12·13·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청량사 주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총도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오후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 열린 보궐선거에서 부여 고란사 주지 탄공스님이 선출됐다. 재적인원 131명 가운데 105명이 투표에 참여한 이날 탄공스님은 75표를 획득해 28표를 획득한 논산 쌍계사 주지 혜우스님을 제치고 당선됐다. 능엄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탄공스님은 1986년 망월사에서 정영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금산 신안사와 공주 영은사, 천안 광덕사, 대전 비래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여 고란사 주지를 맡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이시영 충청지사장 lsy@ibulgyo.com

"종단과 대화로 방안 모색"

대각회 정기이사회 법인법 원만해결 입장

재단법인 대각회(이사장 도업스님)가 오는 7월 종단 법인법 시행을 앞두고 대화로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각회는 지난 2월27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이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의 핵심안건은 단연 '법인법 등록에 관한 건'이다. 대각회는 지난해 11월 '분원장 중진 스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법인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대각회 이사스님들은 "오는 3월 종단 임시종회에서 법인법 관련 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종단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의견을 모으고 해당 안건을 차기 이사회로 이월했다.

이사장 도업스님은 "현재 총무원과 대화를 하고 있고 종회에서도 다뤄진다고 하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면서 "앞으로 큰 잡음 없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종단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선학원의 독자행보와도 선을 그었다. 대각회 이사 보광스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학원과 대각회는 탄생부터가 다른 만큼 같은 법인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면서 "종단과 대화를 통해 지난 2000년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원광스님 부산 옥련암 | 지관스님 김포 용화사 | 명훈스님 김포 금정사 | 성천스님 서울 연화정토사 | 고우스님 봉화 금봉암 | 선일스님 용인 화운사 | 정우스님 영월 만경사

본·말사 주지 인사 (2월 27일 종무회의)

법철스님 홍천 호국사 | 대진스님 문경 대승사 | 지운스님 칠곡 문수암 | 응기스님 대구 용문사 | 성담스님 경산 환성사 | 효덕스님 칠곡 효림사 | 일광스님 산천 대성사

성안스님 인천 보명사 | 정법스님 부산 진흥사 | 운천스님 남원 선원사 | 동수스님 완주 정수사 | 혜인스님 순천 흥륜사 | 대정스님 화순 석불암 | 성적스님 파주 도솔암

구독신청 (02)730-4488
광고문의 (02)730-4490
한장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교사

범부들은 현재의 모습이 진짜 자기인줄 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짜 맞춰진 가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동물은 5식인 본능을 마음으로 쓴다. 범부는 6식인 의식을 쓰고 아라한은 7식인 말나식을 쓰며 보살은 8식인 아리야식을 쓴다. 5식을 쓰면 본능에 충실하고 6식을 쓰면 손익을 따지고 7식을 쓰면 세상을 맑히고 8식을 쓰면 모든 중생이 내 몸이 된다. 이런 단계적 마음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드디어 부처가 된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의식만을 함양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고작 인간들보다 한 수 낮은 동물들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다. 이 의식으로 인간들의 안락과 평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거북이 등에서 털을 찾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의식은 가장 거칠고 저급한 인식작용으로 인간 상호간에 반목과 쟁론만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두 가지 집착인데, 곧 아집과 법집이다.

아집은 자신의 현 모습이 진짜 자기라는 착각이다. 이것은 드라마 속의 연기자가 정말로 그 배역이 자기라는 환상에 빠진 것과 같다. 법집은 중생의 세계가 사실로 존재한다고 믿는 우둔함이다. 이것은 꿈속의 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당착이다.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몽유병환자거나 착시망상가로 살다가 허망하게 일생을 마치게 된다.

양지바른 담장 밑에서 깨어진 밥그릇조각들로 소꿉놀이하던 시절이 생각날 것이다. 내가 엄마고 네가 아빠고 아들딸이고 하다가 진짜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때 임시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는 바로 흩어져 버린다. 이처럼 지금의 모든 가족과 사회와 세계는 의식을 쓰는 인간들이 만들어 낸 허상의 군상들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고 기신론에서는 삼계가 허위라고 하신 것이다.

눈병이 난 자는 허공에 꽃이 보인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고통의 중생세계는 원래 없다. 그런데도 나와 이 중생세계가 진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의식으로 오염된 자신의 시력을 반드시 교정 받아야 한다.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이며 진짜의 내 가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정확히 찾을 수 있다.

大乘起信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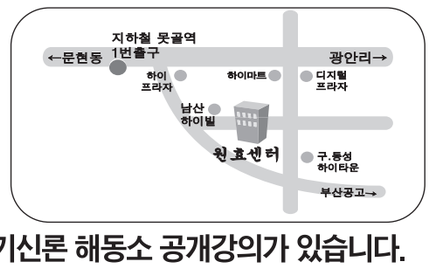
해동소는 원효대사가 대승기신론을 풀이한 해설서입니다. 원효센터는 대승기신론 해동소만을 전문적으로 연구 강설하는 특화 도량입니다. 여기서 제 20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대승기신론 해동소 별기 20期 회원 수강신청 받습니다]
- 19期 회원 현재 수강중 -

개강안내
■법 사 : 공파스님(국제승려)
■개 강 : 3월 12일 (수) 오후8시
■장 소 : 원효센터 智悲光殿
■기 간 : 1년
■교 재 : 무료 – 해동소(고려대장경판)
■입회비 : 10만원 ■월회비 : 10만원

법회안내
■ 1부 : 단체 예불 및 장엄염불 / 신행 중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반
■ 2부 : 대승기신론 해동소 별기 19기 수강 중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반
대승기신론 해동소 별기 20기 모집 중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반
■ 3부 : 일반신자, 기초교리 및 장엄염불 / 신행 중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반
■ 4부 : 엽서로 보내는 부처님 말씀 -엽서이야기-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5부 : 단체 예불 및 장엄염불 / 신행 중 /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반

■공파스님 저서
· 부처님의 유언
· 천수경의 원본경전
· 극락세계 1,2,3
· 원효전집 6권.
· The Vajra Sutra(영판)
· 바이로차나 1.2.
그외 다수.



☎ (051) 611-3808 ■http://cafe.daum.net/wonhyocenter ※ 3월 6일(목) 오후 8시에 일반인들 누구나 무료로 참석 하실 수 있는 대승기신론 해동소 공개강의가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승기신론 해동소 전문연구 강설도량 새(元) 밝음(曉)의 중심(Center) 사찰 원효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2동 1765-6번지 지하철 2호선 못골역 1번출구에서 못골사거리방향, 하이마트 뒷 건물